

오제가 형성되기까지

약 200 만 년 전까지 오제 전 지역은 평탄한 고원 같은 곳이었습니다. 당시 얇은 골짜기 서쪽에서 지면이 융기하기 시작하여 이것이 이윽고 시부쓰산이 되었습니다. 그 뒤 화산 활동이 시작되어 주위에 산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화산들로부터 흘러나온 용암은 경사가 완만한 ‘순상화산’을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산들이 대지(臺地)를 둘러싸서 오제의 지형이 서서히 형성되어왔습니다.

※순상화산: 서양 병사가 손에 들고 있었던 ‘방패(盾)’를 얹어놓은 듯한, 경사가 완만한 화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우치가타케 산이 분화했습니다. 히우치가타케 산의 분화는 약 35 만 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산 서쪽에서 흘러온 용암류가 당시 있던 강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약 1 만 년 전, 히우치가타케 산에서 남쪽으로 흘러나온 용암이 누시리가와 강을 막아서 오제누마 호수가 탄생했습니다. (산의 사면이 붕괴해 강을 막았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 뒤 주위의 산들을 흐르는 강으로부터 운반된 토사가 현재의 오제가하라에 해당하는 부분을 점점 메워 평탄해졌습니다. 강은 빈번히 범람하거나 흐름을 바꾸어 독립된 작은 늪이나 습지를 탄생시켰습니다. 거기에서 식물이 부패하기 시작하여 이윽고 두터운 이탄으로 뒤덮인 습지가 생겨났습니다.